기획 연재

孝와 烈에 관한 瞑想 ⑥⑨

權 五 焄
本紙편집인

197. 박장견해朴張見害

명明나라 군사가 서울을 핍박하자 원元의 순제順帝는 중서평장정사中書平章政事 박새인불화朴塞因不花에게 지키게 했는데 그 거느린 병사가 겨우 수백의 파리한 사졸 뿐이었다. 이에 박새인불화가 탄식하며 좌우에게 말하기를 '국사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내가 다만 이 문과 존망을 같이할 것을 알 뿐이다' 하였다. 성이 함락되어 붙잡히게 되어서는 그 주장主將을 보고 오직 속히 죽일 것을 청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주장이 그를 병영에 머물러 두고는 회유하였으나 끝내 굽히지 않으므로 죽였다.

형부상서刑部尙書 장용張庸은 민병을 거느리고 낙타곡駱駝谷을 수호하면서 종사관從事官 단정段禎을 보내 확곽첩목아擴廓帖木兒에게 구원을 청했으나 회답이 없었다. 장용이 홀로 굳게 지키며 막아 싸웠다. 이윽고 무리가 궤멸되었으나 장용은 피해 떠날 의사가 없었다. 이윽고 변방의 백성 이세걸李世傑이 장용을 붙잡아 묶어 가지고 나가 항복하여서는 적의 주장에게 보이니 장용은 굽히지 않고 단정과 함께 살해되었다.

제목 박장견해朴張見害는 박새인불화와 장용이 살해되었다는 뜻이다. 박새인불화는 원나라 숙량합대 肅良合臺 사람으로 자는 덕중德中이고 그 전사한 사적이 원사元史에 올라 있다. 장용張庸은 원나라 온주溫州 사람으로 자는 존중存中이고 태을수太乙數의 점술에 능했으며 형부상서로서 전사한 사적이 원사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명병백만핍경사明兵百萬逼京師 : 명나라 백만대군 서울을 핍박하니
경하원비일목지傾廈元非一木支 : 원래 기우는 큰집을 나무 하나가 지탱 못하거늘
고수순승동패몰固守順承同敗沒 : 순승문 굳게 지켜 한가지로 패해 묻혀
문명종여영명수門名終與令名垂 : 문 이름과 더불어 고운 이름 드리웠네
형부장공수락타刑部張公守駱駝 : 형부상서 장공은 낙타곡 지키면서
관병장궤독난차官兵張潰獨難遮 : 관군이 무너져 홀로 막기 어려움에도
창양력전능완절槍攘力戰能完節 : 창을 휘둘러 힘껏 싸워 충절을 다하니
장지천추경불마壯志千秋耿不磨 : 장한 뜻 천추에 빛나 닳아지지 않는구나

198. 정곽취사丁郭就死

명나라의 대군이 원의 서울에 입성하니 혹자가 조국공趙國公 중서평장정사中書平章政事 정호례丁好禮에게 명의 대장大將을 찾아볼 것을 힘써 권했다. 그러자 정호례가 꾸짖기를 '내가 하찮은 관리에서 지위가 더 올라갈 수 없는 품계에 이르고 작위는 상공上公이 된데다 지금 늙었다. 한스러운 것은 나라에 보답한 것이 없음이요 빚을 진 것은 오직 한번 죽음일 뿐이다'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명의 대장이 부르니 정호례는 즐겨 가지 않으려 하여 떼메어져서 제화문濟化門에 이르렀으나 굽히지 않고 항변하다가 죽으니 나이 75세였다.

중서참지정사中書參知政事 곽용郭庸이 또한 들것에 실려 제화문에 이르렀는데 많은 무리가 꾸짖어 대장에게 절을 하라 하자 '신하에게는 각기 그 주인이 있는 바이니 스스로 내 분수에 따라 죽을 것인데 어찌 절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말에 조금도 굽힘이 없으면서 죽었다.

제목 정곽취사丁郭就死는 정호례와 곽용이 주음에 나아갔다는 뜻이다. 정호례는 원나라 여주盧州 사람으로 자는 경가敬可였다. 곽용은 원나라의 몽고蒙古 사람으로 자는 윤중允中이며 국학생國學生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거듭 벼슬을 옮겨 섬서행대陝西行臺의 감찰어사監察御史를 거쳐 참정중서參政中書에 이르러 국망과 함께 순사했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정공수시노쇠옹丁公雖是老衰翁 : 정공이 비록 쇠약한 노옹이나
장절미견허국충壯節彌堅許國忠 : 장한 절개 더욱 굳세어 나라에 충성 다하네
여도성문종불굴舁到城門終不屈 : 떠메어져 성문에 닿아서도 끝내 굽히지 않아
지금문자앙고풍至今聞者仰高風 : 지금까지 듣는 자 높은 풍모 우러르네
곽후충분정무주郭侯忠奮政無疇 : 곽후의 충정분발 정녕 짝이 없었는데
분사하필배국수分死何必拜國讎 : 분수에 죽으면서 하필이면 나라의 원수에 절하랴
제화문전감취륙齊化門前甘就戮 : 제화문 앞에서 달게 살륙을 당하니
수림소슬상함수樹林蕭瑟尙含愁 : 수풀의 임목 소슬바람은 지금도 수심을 머금네

199. 서달공업徐達功業

서달徐達은 명明나라 호주濠州 사람으로 자가 천덕天德인데 소시부터 큰 뜻이 있었고 성품이 강의剛毅하며 무예가 영걸스러웠다. 처음에 같은 호주 출신의 백련교白蓮敎 홍건군紅巾軍 수령 곽자흥郭子興의 부장部將으로 있다가 곽자흥이 죽자 같이 그 휘하에 있다가 곽자흥을 후계한 주원장朱元璋의 군문에 들어가니 이때 22세였다.

명 태조太祖 주원장이 휘하에 거느렸는데 도강渡江을 하는 데 종군하여 채석采石을 발성拔城하고 대평大平을 평정하여 건강建康으로 내려가서는 동으로 오월吳越을 이기고 남으로는 호상湖湘(호남성湖南省 동정호洞庭湖와 상강湘江 일대)을 취하여 회하淮河의 동서를 차례로 삭평削平하였다. 뒤에 북으로 중원中原 정벌을 명하자 먼저 제齊와 노魯를 떨어트리고 계속하여 하락河洛(황하黃河와 낙수洛水 지역)을 거두어들이고는 진로를 돌려 연燕과 조趙、진晋、기주冀州 땅을 평정한 다음 다시 방향을 틀어 진秦과 농서隴西 땅을 극복하였다.

서달은 사람됨이, 말은 간결하고 사려는 정밀하였으며 영은 두번 내리지 않으면서 사졸과 더불어 고락을 같이 하였다.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자는 몸소 위문하고 의약을 지급하였으며 군중에 있으면서는 재보財寶를 취하지 않고 부녀자를 가까이하지 않았는데, 고소姑蘇(강소성江蘇省 오현吳縣)에 내려가서는 사졸에게 각자 목패木牌를 목에 걸게 하여 거기에 쓰기를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자 죽는다, 백성의 거소를 철거하는 자 죽는다, 군영을 20리 떠나는 자 죽는다'고 하니 부오部伍가 엄숙하였다. 원元의 서울 대도大都에 들어가서는 부고府庫의 물품에 장부를 만들고 판도版圖(국가 재정)를 수송하여 궁전의 문을 봉쇄하고는 병사 1천으로 이를 지키게 하였다. 환시宦侍로 하여금 망한 원 황실의 빈어비주嬪御妃主(후궁과 공주)를 보호해 돌보게 하고 군사를 금하여 침범해 요란스럽게 하지 못하게 하니 인민은 생업에 안정하고 저자와 가게는 옮겨가지 않으므로 새로이 붙좇는 무리를 몸소 어루만져 따르게 하였다. 성보城堡를 공격해 떨어뜨린 다음에는 적이 그 성을 굳게 지킨 것을 노여워하여 보복하는 일이 없었다.

정벌을 마치고 조정에 돌아올 때는 작은 수레 하나로 집에 돌아가고 높은 공을 자세하지 않았는데 관작이 거듭 올라가 중서우승상中書右丞相에 이르고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졌다. 명 태조가 일찍이 서달을 일컬어 '명을 받아 나가면 성공하여 개선하고 중정中正을 지켜 흠집이 없으며 밝기가 일월과 같기로는 대장군 한 사람일 뿐이라 하였다. 그가 죽은 뒤에는 중산왕中山王으로 추봉되고 무녕武寧의 시호가 내렸다. 이와 같은 서달의 사적은 명사明史에 자세히 올랐고 명나라의 국조헌징록國朝獻徵錄、명명신언행록明名臣言行錄、황조명신언행록皇朝名臣言行錄 등에 실렸다. 그 찬시讚詩는 다음과 같다.

조년반부좌룡흥早年攀附佐龍興 : 일찍 용의 비늘 더위잡아 창업을 돕고
개국훈고작고굉開國勳高作股肱 : 개국에는 공훈이 높아 팔다리 같은 신하 되었네.
증닉형준진지치拯溺亨屯臻至治 : 빠진 것 건지고 막힌 난관 형통시켜 지치에 이르게 하여
무녕공덕흡려증武寧功德洽黎蒸 : 무녕왕의 공덕으로 온 백성을 적셨네
평정환구무략웅平定寰區武略雄 : 천하를 평정한 무략은 웅혼하고
영엄병숙진위풍令嚴兵肅振威風 : 명령은 엄하고 병사는 정연하여 위풍이 떨치는데
부순인혜민안업附循仁惠民安業 : 어진 혜택으로 어루만진 백성 생업에 안접하여
영세난망대려공永世難忘帶礪功 : 마르고 닳도록 오래갈 공덕 잊기를 어려워하네.

200. 제상충렬堤上忠烈

제목 제상충렬은 우리나라 신라 때의 명신 박제상朴堤上의 충렬을 말한다. 신라의 17대왕이 된 실성왕實聖王은 왜국倭國과 통호通好를 위해 전왕 내물왕奈勿王의 아들 미사흔未斯欣을 일본에 볼모로 보내고 또 고구려에는 역시 통호를 위해 미사흔의 형 복호卜好를 볼모로 보냈다. 실성왕은 과거 자기가 고구려에 가 볼모살이를 한 데 대한 원한도 있고 내물왕의 큰아들 눌지訥祗를 시기도 하여 고구려의 힘을 빌어 이를 살해하려다 오히려 눌지를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한 고구려의 힘을 입은 그쪽의 역습으로 죽고 눌지왕이 즉위하게 되었다.

임금이 되자 눌지왕은 고구려와 왜국에 각기 볼모로 가 있는 두 아우를 데려오고자 오매불망하였다. 이때가 서기 418년인데 왕의 셋째 아우 미사흔은 실성왕 1년, 402년에 볼모로 갔으니 왜국에 있는 것이 17년째 였다. 이 무렵 신라는 백제 세력을 견제할 필요에 따라 402년에 미사흔을 왜에 보낸 데 이어 바로 뒤 412년에는 내물왕의 차남 복호를 고구려에 보내 군사원조를 청했으나 왜국과 고구려는 이들 왕자를 인질로 삼아 놓고 득실을 재며 이용하고 있었다. 왕은 언변이 좋은 사람을 얻어 두 아우를 가서 데려오게 할 생각을 골몰히 하니 수주촌간水酒村干 벌보말伐寶靺과 일리촌간一利村干 구리내仇里迺、이이촌간利伊村干 파로波老 등이 삽량주간歃良州干 박제상朴堤上이 그 적임이라고 추천하였다.

박제상은 삽량주, 지금의 양산梁山 지방 토호세력이었는데 기꺼이 가겠다고 나서 먼저 고구려로 들어가 장수왕長壽王을 지략과 언변으로 설득하여 복호를 구출해 무사히 귀국하였다. 이에 눌지왕이 기뻐하면서 '두 아우를 좌우의 양팔로 생각했는데 이제 한 팔을 얻었으니 다른 한 팔을 어찌할 것인가' 하고 탄식하였다. 이 말을 들은 박제상은 삽량주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길로 왜국으로 떠났다. 이때 그 아내가 달려와 간곡히 말렸으나 이를 뿌리치고 왜국에 건너간 박제상은 신라 임금이 자기 부형을 죽였으므로 도망해왔다고 하니 왜국왕이 이를 믿었다. 이때 마침 백제에서 사신이 와 왜왕에게 고구려와 신라가 연합하여 왜국을 침략하려 한다고 참언하니 왜왕은 이를 곧이듣고 군사를 내어 백제와 협력해 신라를 치고자 하며 박제상과 미사흔을 그 향도로 삼았다. 왜군이 신라를 정벌하러 오는 도중에 박제상은 신라인 강구려康仇麗와 협력하여 미사흔을 탈출시켰다.

박제상은 이때 마사흔과 함께 배에 올라 마치 풍광을 완상하는 것같이 하니 왜인이 의심치 않았다. 박제상이 미사흔에게 강구려와 함께 몰래 환국하라 하니, 미사흔이 함께 가자고 하였다. 박제상이 '함께 가다가는 모사謀事가 이루어지지 못할까 두렵다' 하고 배에서 내렸다. 미사흔이 탄 배가 이미 멀어진 뒤에야 왜인이 이를 발각하고는 박제상을 결박하여 왜왕 앞에 데려

12면으로 계속